

자기소개서

소 속	
직 위	
성 명	

자기소개서

소속		직위		성명	
----	--	----	--	----	--

교직에 발을 내딛던 시절

무단지각, 조퇴, 결석은 말할 것도 없고, 문신이나 자해 흔적을 자랑하며 교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무리도 있었던, 2000년 첫 발령지 <진해제일고>에서 저는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남에게 인정받기 힘들었고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매일 창원에서 학생 3명을 태우고 출근하였고, 수업을 줄이고 학생들과 대화를 즐겨 했습니다. 신라대 주최 일본어 노래대회 참가 학생들의 연습에 기타반주를 해주며, 금상을 받은 날 부모님들과 함께 노래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수학과 진로를 화두로 삼은 인문계 고등학교

<창원남산고>에서의 첫해였던 2002년, 넘치는 의욕으로 학년부기획, 총무, 보충수업, 모의고사 업무까지 도맡아 하며 처음 접한 엑셀 프로그램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야간자습은 거의 매일 남아서 학생들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해 얻은 건 선배 교사들의 칭찬과 엑셀 다루는 실력, 지독한 독감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3년간 3학년 담임을 하면서도, 호기심과 도전정신으로 매년 새로운 업무를 맡았습니다. 처음으로 '선택형 보충수업'을 추진할 때 할 사람이 없어 제가 맡아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명지여고에 문의하고 엑셀을 이용하여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진학상담프로그램'을 만들어 선생님들에게 배포하여 진학과 성적상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한명 한명 꾸준히 진학상담을 하겠다는 결심과 그들의 3년간의 생활을 영상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실천했습니다. 수시로 제 캠퍼스로 일상을 촬영했고, 방대한 양의 방송부 촬영 테이프까지 함께 편집해서 DVD로 제작한 후 졸업 때 선물했습니다. 3학년 담임을 하며 한명 한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많이 배우고 실천한 것 같습니다. 2007년 <창원용호고>에서 '2학년부장'을 맡아 '관리 교사'와 '생활지도 교사'로서의 학년부장보다는 타 담임의 모범이자 봉사자, 관리자와 담임 간의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는 '대표담임'이 되기로 마음먹고, 매일 아침 입구에서 2학년 학생들을 맞이하였고 안색이 안 좋은 학생은, 담임교사가 꼭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년부 분위기도 좋아서 모두 3학년 담임을 함께 하자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수학동아리 '큐브'를 만들어 축제 때 '제1회 용호고 수학 체험전'을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 3학년 부장을 맡아 학생들의 대학진학에 저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마음먹고, 남아서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들과 밤 12시까지 함께 하였고, 귀가 때 부모님이 오시지 않는 학생들을 집까지 태워주고 퇴근하였습니다. '진학상담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담임선생님에게 배포·연수하였고, 모든 담임선생님이 대입원서 작성 시 학생과 3번 이상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해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경남 8위라는 기사가 났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대학을 잘 선택하는 것은 담임의 세심한 정성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듬해 1학년부터 진로지도를 하려고 1학년 부장을 지원하였고, 깊이 있는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 동아리 학생을 위해 '수학 심화반'을 따로 만들어 매주 발표 및 토론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학생들이 열어준 송별회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정한 교사로 이끌어 준 새로운 길 대안학교 태봉고등학교

대학생 때 친구들에게 입버릇처럼 10년 동안 일반 학교에서 능력을 키운 후 대안학교에 가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사생활 10년째가 된 2009년 가을 공립대안학교 <태봉고>가 개교한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5분 만에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운명과의 인연이 태봉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2010년 담임과 교무기획업무를 맡아서 낮에는 학생상담과 수많은 사건 사고를 해결하고, 늦은 밤 퇴근 후 집에서 교무업무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만나 보지 못했던 다양한 성향의 학생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며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비로소 느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때로는 자만과 비수가 되어 학생들을 공격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고, 앞서서 이끌기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더욱 소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성과 감동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2011년 학년부장을 맡아 학생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간부수련회를 구성하였고, 학생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관리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함께 구상했던 2주간의 네팔이동학습도 무사히 치러내었습니다. 정신없고 산만하던 학생들이 폐허가 된 어느 학교 터에서 네팔 돕기 동아리 ‘NCF’를 만들자고 결의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내적으로 성장하고, 그 모습에 어른들이 함께 감동하는 과정이 마치 공식처럼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내면의 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졌던 한 해였습니다. 업무경감에 대한 고민을 동료들과 많이 나누면서, 2012년 담임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학생지원부장을 맡은 제가 모두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자치와 생활지도를 하며 9명의 담임 업무를 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교무부장의 갑작스런 공석으로 인해 교무부장 역할을 맡아서 교장공모 업무, 교사 선발, 신입생 선발, 교사 업무분장을 무사히 마쳤고, 2016년까지 교무부장을 맡았습니다. 매주 1~2시간 동안 교사 회의를 진행하면서 교사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소통되도록 했고, 교사가 자신감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월 2, 3차례 정도 방송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교사와 단체들이 방문하는데, 그들을 맞이하고 안내하였으며, 외부 강의도 20여 차례 했습니다. 지리산 종주 때는 일부러 힘든 코스를 선택하여 제일 뒤에서 걷는 학생과 함께 숙소로 도착하곤 했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학생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야 하는 게 힘들고, 남들보다 서너 시간 늦은 밤 8시에 도착하는 일이 반복됐지만, 마지막 한 명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제주도 도보여행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뒤처지는 학생 옆에서 격려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걸곤 했습니다. 학생과 함께 하는 게 좋아서 자연스레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린나래’, 태봉신문 ‘T-times’, 축구 동아리, 야구 동아리, 지역 역사답사 동아리, 걷기 동아리는 모두 제가 관여한 활동입니다. 축구 동아리, 야구 동아리는 평소엔 선수로 참여하다가 스포츠클럽 대회, 대안학교 축구대회에서는 감독으로 참여했습니다. 2015년에는 희망 학생들과 함께 친환경 적정기술을 활용한 작은 집을 설계하고 제작해보았습니다. 학부모 독서 모임과 교사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매개로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민, 학생과 태봉고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태봉고에서 저는 무척 자유로워 졌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도전

2018년 입시에 시달리며 야간 자율학습에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학생들과 다양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선택한 <명서중>에서, 놀랍게도 학원 가기 바쁜 중학생들을 방과 후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명기 공부방’을 방과 후에 개설하여 매년 운영하고 있고 덧셈 뺄셈부터 공부를 시작한 그들과 깊이 소통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수학에 관심과 소질 있는 학생들과는 경상남도교

육청 주관 수학 체험전(2018, 2019)에 함께 참여하여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점심시간에 가끔 찾아오는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동료 교사들이 어리다고 무시하던 중학생들인데 저도 모르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려 보이는 중학생들도 어김없이 자신의 내부에선 넓고 큰 세계가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지 않고 교탁 너머로만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들을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2019년부터 교무부장을 맡아 교사들의 업무경감과 자유롭고 민주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력하는 문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으로는 경남수학교사모임 ‘메스프론티어’(2005~2013)에 참여하여, 매주 창원지역 세미나를 통해 외국 서적 번역 출판, 교과서 분석, 수학교육에 관한 토론, 수학 체험전 개최, 일본학교, 다른 지역 수학교사 단체와의 수업 교류 활동을 하였고, 교육청 수학 관련 과제나 사업에 여러 번 참여하였습니다. 마산 YMCA 미디어사업위원회 위원(2017년~현재)을 맡아 매년 ‘청소년 영화제’와 ‘청소년 영화 캠프’를 개최하였고, 월 1회 모임을 통해 청소년이나 시민들의 미디어 관련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경상남도교육청의 ‘행복학교 컨설팅트’로서 교직원문화 개선을 위한 강의 활동, 2019년 ‘학교문화혁신을 위한 강사 요원’으로서 ‘학생자치영역’에 대한 강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남해보물섬고등학교 교육과정 수립 TF’와 ‘일제잔재 용어사전편찬 TF’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저는 거창한 성과를 내거나 결과물을 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을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주변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드러내 보일 만한 화려한 결과물은 그리 없지만,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스레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둘 쌓여, 제 마음은 더욱 커지고 더욱 넓어지고 자신감도 더욱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명서중학교에 근무하며 몸과 마음은 편하지만, 가끔 근질근질합니다. 중단되었던 남해보물섬고등학교 TF활동이 다시 시작되며 잊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거창연극고의 개교 준비 워크숍에서 강의 하며 바라본 선생님들의 긴장 반 설렘 반의 눈빛은 10년 전 저와 닮아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분들이 겪을 수많은 환상적인 경험과 눈물겨운 깨달음을 생각하니 강의하던 중에 눈물이 핑 돌았고, 소감을 얘기할 때 ‘부럽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대안학교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 설립되는 대안학교는 긍정으로 부정을 이겨내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데서 더 나아가 교육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미래학교를 고민해야 합니다. 뛰어난 자연환경, 날렵하고 순발력 있는 학교 규모, 창의력 넘치는 교육과정, 열정적인 교사, 상상력이 풍부한 학생을 장점으로 삼아 학교가 할 수 있는, 아니 교육으로 상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가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보면 남해는 아주 먼 지방의 시골 마을이겠지만 대개 수많은 역사와 변화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수도보다는 상상력과 자유로운 실천이 가능한 변방에서 일어난다는 역사의 경험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남해보물섬고등학교가 남해상주중학교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를 더욱 활활 태울 수 있는 새로운 미래 대안 교육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장작이 되어 보고 싶습니다. 관리자가 교사와 다른 점은 비전을 제시하고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리고 활동의 결과를 의미있게 해석하고, 주변의 호응을 잘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뜻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학생들과 구성원을 잘 이끌어 좋은 학교, 사랑받는 학교,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학교, 교육의 미래를 내다보고 가치를 지켜나가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부족한 능력은 최선의 노력으로 채워나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